

# 청년주보



말씀그림 | 박유스티나

**입당송** 시편 17(16), 15 참조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흠족하리이다.

**제1독서** 야모 7, 12-15

**화답송** 시편 85(84), 9-11과 10, 11-12, 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에페 1, 3-14 (또는 1, 3-10)

**복음환호송** 에페 1, 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르 6, 7-13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서울A지트를 소개합니다!



가톨릭 청소년 이동 쉼터 서울아지트는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고민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삶을 포기하는 대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서울아지트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서울아지트는 청소년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편하게 쉬고,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 인생길에서 가장 믿어야 할 그 분



은성제 요셉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아지트

저는 6년째 ‘아지트’라는 이름의 버스로 방향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찾아 서울 곳곳을 다니며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지트에서 주님의 힘으로 완전히 변화된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중3이었는데 이 친구는 착하고 힘없어 보이면 자기보다 형이어도 일부터 반말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는데 부모님은 이미 이혼하셨습니다. 중1 때는 예상과 달리 친구도 없이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명랑한 청소년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중2가 되어 드디어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기뻐하였는데 알고 보니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3이 되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탈선을 저질러서 어머니는 다시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점점 내리막 인생을 가던 이 친구는 지속적인 폭력 문제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다툼 등으로 고1 때 얼마 못 가서 자퇴했습니다. 그 뒤 이성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무리에서 가장 힘센 선배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를 뺏기면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도 수차례 전화가 왔고, 대부분의 경우 우울을 못 이기고 자해를 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상담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 친구에게 다니던 교회를 나가보기를 권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지트 여자 선생님들을 줄줄 쫓아다녔을 친구가 저나 사목 실습을 하는 신학생에게 천주교 교리들과 성경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천주교로 개종시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기도드렸으나 기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유튜브로 좋은 내용의 설교들을 체크하고 꾸준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 문제, 하느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 회개와 용서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등 영혼 회복에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했는데 잘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아지트에 발걸음이 끊겼는데 5월 초, 친구에게 카톡이 와서 열어보니 ‘검정고시 합격증’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축하 전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왜 이리 방문이 뜸한지 물었더니 친구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제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요. 저 하느님 앞에서 깨끗이 살려고요. 그래도 신부님 뵈러 갈게요. 신부님은 저한테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사라지고 자해도 그쳤고, 병원도 안 가고 약 끊은지도 꽤 됐다고 말하더군요.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회개로 이끄시고, 영혼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명하시고”(마르 6,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이 친구의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시고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길에서 삶이 위기와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주님이 머문 자리

한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리가 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쁨을 느끼며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제빵사라는 직업 안에서도 주님이 머물다 가신 자리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김연후 힐라리오 / 서교동 성당]



# 초대합니다



오늘의 복음 (마르코 6,7-13)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선물하신 말씀**을 만나러 오세요.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  
세상과 연결하는 기도를 바쳐봅시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오”**

(6,8)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선포는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는지 뽐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마르 10,25)고 하셨건만, 가진 것을 내려놓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돈이 좋고, 부귀영화가 좋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들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유 있는 것은 나누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면 기꺼이 손을 보태겠습니다. 어떤 사명이 내려진다면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따라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처럼, 재물 대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치장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 이진욱 안드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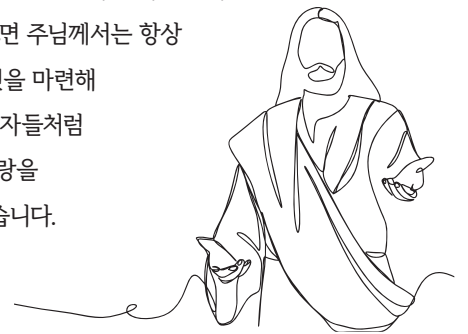
무엇보다 귀하신 은총의 주님,  
눈앞의 것들만 좇으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  
헛되이 사라질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바라게 하소서.  
저희는 부족하나, 무엇이든 가능하신 당신께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6,12)

여행 준비를 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필요 없는 물건까지 챙기곤 합니다. 결국, 짐이 무거워져 이동하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챙긴 물건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걱정하거나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 박재민 비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주시고  
제 길을 밝게 비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불꽃을 가득 채우시어  
주님께서 베푸어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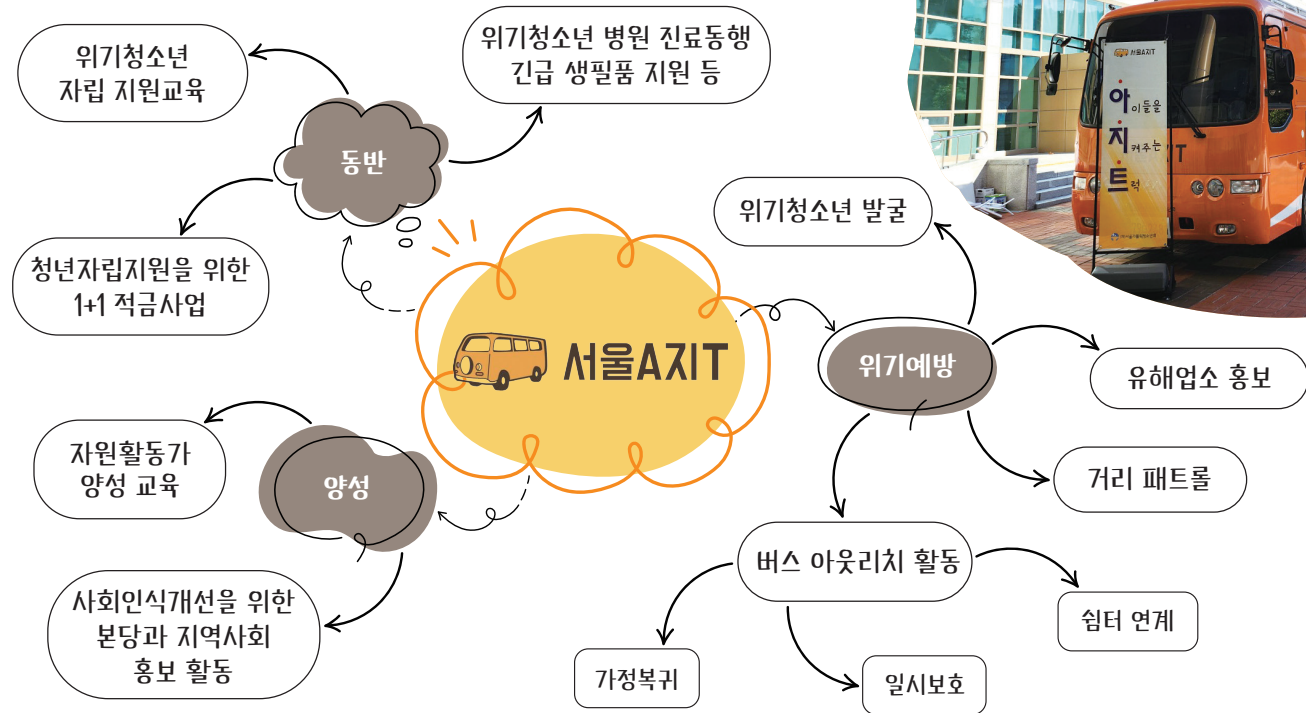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 서울A지T



‘아지트’는 어떤 사목방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청소년과 동행하기 -



## 서울 아지트와 함께하는 청소년들 .....



청소년A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꾸준한 구직 활동을 시도해왔으나, 직업 기술이 부재할 뿐 아니라 청소년한부모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매번 구직에 실패하였습니다. 아지트를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 필요한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받았으며, 아이들과 도란도란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위하여 간호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 아이의 당당한 엄마이자 멋진 사회인이 되기 위한 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 편모가정에서 자라오며 어른의 따뜻한 손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와 함께 더 깊은 방향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학력이 고졸이라는 것을 성인이 된 후 사회에 나와 알게 되었습니다. 20살부터 시작된 검정고시... 그러나 기초가 없었던 저는 몇 번이고 합격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지트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4수 만에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B

###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 학교

때 8월 13일(화)~18일(일)

대상 가톨릭 신자(예비 신자도 가능)

장소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문의 010-5531-1008, 카카오톡 플러스 "ICPE" 채팅

###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부서원 모집

내용 주님의 도구로서 청년부와 함께할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 밴드 유빌라떼, 주보편집부, 홍보부, 번역부

지원 문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02-762-5071~2